맛과 인심 버무려낸 광주의 한상차림

문화전당 亞문화연-광주·전남 기협 '광주 한사발' 펴 내

발로 찾은 맛집 24곳 소개

문순태·이대흠 등 글 실어

8일 출간 기념 북콘서트

참가자 전원 책 무료 증정

'민들레' 굴비정식

"타고난 시골 솜씨 한철 만나셨나/ 산 1번지에 오셔서/ 이불 빨고 양말 빨고 콧수건 빨고/ 김치, 동치미, 고추장, 청국장 담그신다/ 양념보다 맛있는 사투리로 담그신다'(조태일 '어머니 곁에서'부분)

시인 이대흠은 광주 음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숟가락 하나 더 얹어 나눠 먹는 밥이 진짜 밥이다. 그것이 남도의 밥상이고, 광주의 음식이다. 그럴 때면 무등산이 고봉밥처럼 넉넉하게 보일 것이다."라고. 소설가 문순태는 "한번쯤 전라도에 와 '게미 있는 음식들을 먹어보라'고 권한다.

맛깔스런 광주 음식을 만날 수 있는 책자가 나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연구소는 광주·전남 기자협회와 함께 광주 지역 음식 문화를 탐구하고 맛집을 소개하는 '광주 한사발'을 펴냈다.

책은 소설가, 시인의 음식 관련 에세이를 비롯해 발품을 팔아 찾은 맛집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정의 맛', '고향의 맛', '자연의 맛', '신비의 맛'으로 나눠 소개한 곳은 모두 24곳이다. 광주의 맛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있는 식당을 발굴하기 위해 남도전통음식연구소 등 지역 요리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선정했다.

음식점 목록엔 광주 토박이들이라면 이미 단골로 삼는 집도 있고,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곳들도 있다. 새롭게 '발견'한 가게도 보인다. 모두 맛과 풍성한 이야기가 양념처럼 버무려진 곳이다. 깨끗하고 깔끔한 인테리어의 가게도, 허름하고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흐르는 오래된 맛집들도 담겼다.

'명화식육식당' 애호박 찌개

'백수 간재미' 간재미 회무침

애호박 찌개(명화식육식당), 국밥(장수 왕국밥), 보리밥(쉬어가는 보리밥) 등은 넉넉하지 않은 호주머니 사정으로도 망설이지 않고 가게문을 밀고 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다. 된장국(밀락원), 회식의 단골메뉴 삼겹살(칠우 불고기), 만인의 간식 통닭(수일통닭)을 비롯해 큰 맘 먹고 찾게 되는 육전(대광식당), 오리고기(관가·27년)집 정보도 담았다. 또 '설렁탕'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명덕식당', 전어구이 맛집 '영흥식당', 겨울이면 생각나는 '백수 간재미' 등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밖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 광주를 찾을 때마다 밥을 먹어 유명해진 '민들레(옛 길家네)'의 굴비·쌈밥·간장 게장 정식, 민어 선어회로 유명한 '내일 또식당' 등도 만날 수 있다.

맛집 취재에는 광주일보 박기웅 기자와 전남매일 황애란 기자가 참여했고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은 청년문화기획자이자 움직이는 스튜디오 '동네줌인'을 운영하는 김태진·강선철씨가 촬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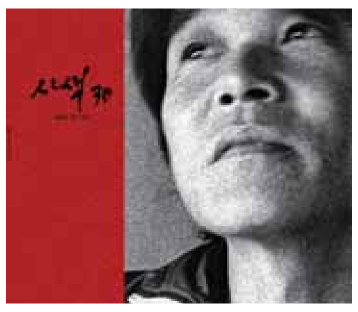
책에서는 문순태의 '오래 발효된 정(情)의 맛', 이대흠의 '문학작품으로 만나는 광주 음식', 오광록 광주일보 기자의 '밥 한 그릇의 사랑', 황형철 시인의 '남도 맛의 집결지 광주' 등의 에세이를 만날 수 있다.

아시아문화연구소는 책 발간을 기념해 오는 8일 오후 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 파크 북라운지에에서 '광주 한사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문순태·이대흠 작가 등 필진과 방문객들이 '내 인생의 한끼'를 주제로 함께하는 토크쇼다. 이날 북 콘서트에 참가한 이들에게는 '광주 한사발'을 무료로 증정한다. 문의 062- 236-33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민중가수 박종화 작곡데뷔 30주년 기념앨범 '사색 30' 출시



기념음반 13곡·모음집 12곡 묶어

'투쟁의 한길로', '바쳐야 한다' 등의 작곡가로 널리 알려진 광주의 민중가수 박종화(54)씨가 작곡데뷔 30년을 맞아 기념앨범 '사색 30'〈사진〉을 출시해 화제다.

세 권의 시집을 낸 시인이자 네 차례의 전시회를 가진바 있는 서예가이기도 한 그는 창작 데뷔 30년을 맞이하여 1980년대부터 오늘까지 자신이 작곡한 노래들을 새롭게 다듬어 신곡과 함께 내놓았다.

'사색 30'은 기념음반과 모음집으로 나뉘어있다. 기념음반에는 '저 창살에 햇살이', '티 안 나게', '전사의 어머니', '마시자', '금반지', '맘대로 해라' 등 13 곡이 담겼다.

모음집에는 '기억하라 맞서라', '지리산 2절', '그대 가는 곳이 길이다', '파랑새', '불혹', '잠든 아가에게', '투쟁의 한길로' 등 12 곡이 수록돼 있다.

그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선보인 민중가요는 '분노'다. 이 노래는 1987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인권복지위원회'와 '예비역협의회'라는 특별기구의 회가로 채택돼 불리게 됐다. 이후 박 씨는 5·18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감옥생활을 하게 되고 1988년 출소 후 옥중 창작집을 내놓았다. 이 창작집은 당시 노래 좀 한다는 학생운동 동지들을 규합해 기타와 신시사이저만으로 반주를 제작했다. 이후 순식간에 전국의 대학가에 퍼지게 됐고 박종화는 단숨에 민중가요 작곡가의 명성을 얻게 됐다.

'분노'라는 창작 테이프에 수록되었던 '파랑새', '한 별을 우러러 보네', '지리산', '분노' 등의 노래는 전국의 투쟁현장을 강타하면서 박종화 신드롬을 낳기도 했다.

이후 그는 '바쳐야한다', '고난의 행군' 등 작품집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작곡가로써 입지를 굳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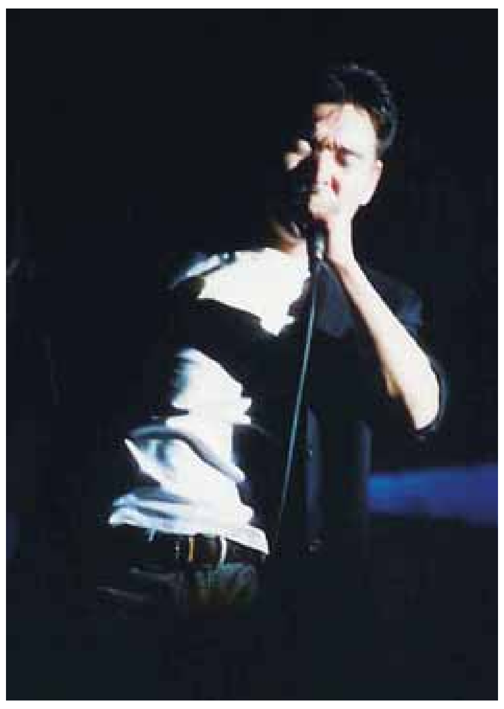
그렇게 시작한 박종화의 창작활동은 30년간 지속됐고 변화된 사회적 환경에 따라 노래도 변화해 갔다. 90년대 중반에 들어 운동권이 민주화된 사회가 완성된 것처럼 변해가는 환경에서 그와 같은 음악인들은 점점 사라져갔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노래하기로 결심하고 '갈 길은 간다' 창작집 발매 이후로 직접 노래를 불러 앨범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민중이 존재하는 한 민중가요는 영원하다'는 슬로건을 걸고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선보였던 앨범들은 '혼자만 살았다는 기분', '아빠의 노래', '지금' 등이다.

박 씨는 "세상이 변하듯 민중가요를 찾는 이들의 손길도 달라졌지만 시와 노래는 나에게 여전히 '가야할 길'이다"며 "나의 길 걸어갈 때 햇살 한 점 없어도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고 전했다.

박종화 작곡데뷔 30년 기념앨범 '사색 30' 중 기념음반 13곡은 디지털 음원으로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으며, 모음집이 함께 포함된 CD앨범은 페이스북페이지 (www.facebook.com/pch0603/) 또는 '박종화 사색 30'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공연중인 박종화의 모습.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입주작가·지역작가 내일 간담회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 입주작가의 창작지원을 위해 입주작가 크리틱(Critic)과 지역 작가들과의 간담회를 6일 오후 2시 개최한다.

광주지역 작가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에는 현재 광주작가 윤세영·이정기와 해외작가 렌지(싱가포르), 료타 시이바시(일본)가 입주해 활동하고 있다.

금강미술관 이성석 관장, 광주비엔날레 조인호 정책실장에 이어 이번 초청 크리틱 강사로 광주신세계갤러리 윤준 큐레이터와 이은하 큐레이터(독립큐레이터&전시컨설턴트·전 광주비엔날레 전시팀장)를 초대했다. 두 사람은 4명의 입주작가들과 작품에 대한 설명, 작업방향에 대한 심층적 대화를 펼칠 예정이다.

이후에는 지역작가 및 뽕뽕브릿지, 오버랩,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등 지역 레지던시 공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진다. 이번 간담회는 렌지와 료타 시이바시작가의 송별회를 겸한 자리로 이들은 광주에 머물며 진행한 작업들에 대해 발표한다.

한편 국제레지던시에는 3월부터 중국, 대만, 독일 작가 및 기획자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문의 062) 613-715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올 상반기 활동 ACC 자원봉사자 14일까지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이 2018년 상반기 동안 활동할 ACC 자원봉사자를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

ACC 자원봉사자는 만 15세 이상의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누구나(외국인 포함) 지원할 수 있으며, 장기간 활동하는 상시형(현장) 4개 분야와 특정 기간만 활동하는 단기형(온라인, 아카데미) 2개 분야로 구성된다.

상시형은 ACC의 각 곳곳에서 방문객들을 안내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하며 전당일반, 투어, 문화창조원, 어린이문화원 분야로 나뉜다.

단기형은 온라인 홍보와 아카데미로 나뉜다. 아카데미 분야는 강의 진행을 보조하고 온라인 홍보는 ACC를 온라인으로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ACC 온라인 자원봉사자'를 신설해 4개월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카카오스토리, 밴드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개인 SNS계정 소지 및 활동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 서류는 ACC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이메일(newra@korea.kr)로 14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거나 ACC 방문자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01-4067.

/전은재기자 ej6621@